

지평선산단 완공 · 특장차전문단지 집적화

김제시 산업경제의 도약과 행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야심차게 추진해온 지평선산단 입단지가 지난해 4월 준공식을 계기로 국내 최초의 특장차전문단지 집적화까지 신산업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새만금 개발이라는 새로운 성장잠재력까지 탑재하게 된 김제시의 성장성이 주목받고 있다. 김제시는 새만금 2호방조제 관할권 확보 호기에 맞물려 준공 후 3년 내 분양률 100% 달성 목표로 새만금 경제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온 행정력을 투자유치에 올인 하고 있다.



▲투자유치 성과

김제시는 백산면에 최적화된 물류인프라를 갖춘 2,986천㎡(90만평) 규모의 지평선산단지에 2,99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자유무역지역(30만평)과 일반산업단지(60만평)로 특화해 분양 중에 있다.

자유무역지역은 2009년 지정승인 후 30만평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분양되었으며, 일반산업 단지는 43만평이 분양되어 현재 분양률 65%를 달성하고 있다.

글로벌 외무기업 로얄캐닌, 국내 최고의 육가공업체 도드람, 현대자동차 협력사 대승, 일본 농기계 기업 구보다 등 26개 기업과 미래창조과학부가 출연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입주하였다.

26개 업체 중 11개 기업이 가동 중이며, 15개 기업은 건축 중이거나 설계 중으로 2016년 공장 가동 목표로 한창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3년 내 분양률 100% 달성을 위해 지난해 2월 조지개편을 단행 투자유치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투자유치부터 관련 인허가,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투자유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략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

지평선산단단지 내 30만평 규모로 국내 7번째로 조성된 김제자유무역지역은 저렴한 임대료(무상 제공)와 관세특례 및 각종 세제혜택 등을 통해 글로벌 외무기업과 수출전문기업을 김제로 유치하게 된다.

중국 및 동북아 수출전진기지를 목표로 조성된 자유무역지역은 새만금 배후로서의 뛰어난 입지여건을 통해 세계적인 농기계 기업인 구보다를 유치하고 러시아 외무기업인 ANK 등 5개 업체가 공장을 준공하여 가동 중이다.



또한 총사업비 394억원이 투입되는 표준공장 3개 동이 3월에 준공되면 국내·외 우량기업들의 최적 투자처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유치 인프라 및 투자인센티브 구축

지평선산단단지가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다른 아진 뛰어난 성장잠재력을 통해 김제의 미래가치가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우선 국가적인 프로젝트인 새만금 개발의 최고 수혜지역이며 새만금을 뒷받침할 전북권 유일의 지역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서해안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산업도로를 통해 전북권 산업벨트의 한 중심에 잡아 최적의 물류망이 구축되어 있다. 또한 동

북아시아 최대 수심 지역에 건설 중인 새만금 신항과 신항과 지평선산단을 포함까지 연결하는 새만금포항고속도로는 김제를 넘어 전북의 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평선산단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저렴한 분양가뿐만 아니라 분양가를 최대 20%지원받을 수 있고 전주, 익산, 군산 완주에 비해 시설투자 보조금을 최대 10% 더 지원받을 수 있어 전국 최고수준의 투자인센티브를 제공 받는다.

또한 지난해 3월 중기청으로부터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제지정을 받아 지평선산단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은 법인세 및 소득세를 4년간 50% 감면받는 세제혜택이 가능해 전국 어디와 비교해도 앞서는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기업 등 자유무역지역에 유치

지평선산단 입주기업에 최고수준 인센티브 제공

특장차전문단지 조성 물류비 절감 · 경쟁력 확보

▶지평선 산단 조감도

▲PF자금 대출 400억 상환

김제시는 지평선산단단지 사업비 자금으로 대출받은 1,600억원중 480억을 2015년에 상환하였으며 현재 확보된 자금은 분양 중도금 등을 포함하여 334억원이다. 대출금 50% 이상이 상환 및 확보된 상태이며 올해 7만평 이상 분양 시 자금 확보금액은 400억원 정도 예상되고 순조로운 투자유치 성과실적으로 봤을 때 2018년까지 100% 분양완료 되어 대출 잔금을 기한 내 상환할 것으로 보여 진다.

▲국내 최초 특장차전문단지 조성(김제백구농공단지)

김제시는 백구면 부용리 일원에 328천㎡(10만평)에 총사업비 306억원을 투입하여 전국 최초의 특장차전문단지(김제백구농공단지)를 조

성하고 금년 4월 분양공고 후 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을 70%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 중대형 상용차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는 현대상용차와 타타대우가 근거리에 위치한 이점을 살려 최적의 장소에 조성되는 특장차 농공단지는 20개 특장차 기업이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준공과 함께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장차 자기인증지원센터 구축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특장차 자기인증지원센터 구축공모사업에 김제시가 최종 선정되어 백구농공단지 내 2017년까지 총 사업비 65억원이 투자돼 자기인증검사 장비 9종과 성능시험 지원장비 4종이 구축될 예정이다.

그간 지역 중소 특장차업체는 경기도 화성소재 교통안전공단 자평차인원연구원에서 자기 인증을 받았으나 특장차 자기인증지원센터 유치로 특장차기업의 숙원사업인 물류비 절감 및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고 특장차 및 관련 산업의 집적화가 가능해져 도내 특장차 기업의 매출액 및 종사자수의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증대효과가 기대된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기업이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자유치를 시장의 최대 역점사적으로 정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국내기업, 외국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지평선산단단지, 김제자유무역지역, 특장차전문단지의 투자유치를 통해 새만금 경제중심도시 도약의 발판을 반드시 이뤄 힘찬 비상, 희망찬 미래창조를 위해 힘차게 나아겠다"라고 전했다.

/김제=곽노태기자

